**현대해상 창립 60주년 기념 음악회**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현대해상 창립 60주년 기념 음악회에**

**귀 대학의 음악 전공 학생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 초청대상** : 음악 전공 학생 12명 (1인 1매)

**#** **초청좌석** : 합창석 및 3층 일부 좌석

**# 신청방법** : 이메일(concert60@hi.co.kr) 온라인 개별신청 (학교/전공/성명은 반드시 기재)

**# 신청기간** : 9.2(수) ~ 9.11(금)

**# 결과안내** : 9.18(금) 신청 학생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

**# 문 의** : 02)738-6060 현대해상 기획실

**# 일 시** : 2015년 10월 11일(일) 오후 5시

**# 장 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출 연** :

**협연 및 지휘ㅣ크리스토프 에센바흐, Christoph Eschenbach**

크리스토프 에센바흐의 지휘는 뚜렷한 구상과 정연한 흐름, 강렬한 에너지 등을 연주 속에 포진시켜 청중들에게 따스한 감흥을 남긴다. – 월간 <객석>

뛰어난 현장감, 재능, 음악적 이해력으로 세계 정상의 오케스트라 및 오페라 하우스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으며, 객원 지휘자로서도 인기가 높아 정기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주요 오케스트라들을 지휘하고 있다. 창조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지휘자로서나 협력자로서 그리고, 젊은 음악인들을 위한 열렬한 후원자로서 활발히 활동하는 그의 역동적인 에너지는 그가 `우리 시대 최고의 음악인 중 하나`로 칭송 받게 하고 있다.

빈 필하모닉과 에센바흐는 각기 다른 지휘자, 오케스트라와 함께 여러 차례 한국을 찾았지만, 국내에서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지휘자인 이 둘이 한 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리스토프 에센바흐는 세계 정상급의 지휘자인 동시에 필립스가 선정한 20세기 위대한 피아니스트 100명에 선정되기도 한 피아니스트로 올해는 에센바흐가 세계적인 음악가에게 수여하는 음악계의 노벨상인 ‘에른스트폰 지멘스상’을 수상하기도해, 이번 내한공연이 한층 뜻 깊다.

**연주ㅣ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Vienna Philharmonic Orchestra**

세계 3대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8742년 창단해 올해로 창단 173년을 맞이하였다. 그 오래된 역사만큼 정통성을 고집하며 세계 최정상을 지켜온 최고의 오케스트라이다. 유서 깊은 역사와 쟁쟁한 관록을 보유한 유럽의 명문 오케스트라 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며 불변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 사운드의 비밀은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악기와 독보적인 연주법, 그리고 유구한 역사적 전통에 기인한다. 빈 필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빈 필 교유의 전통 악기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피치(음 높이)를 구사하는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높은 피치의 관악 파트가 주조해내는 풍부하면서도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과 일사불란한 현 파트가 만들어내는 정교함의 어우러짐을 통해 관객을 감동시킨다.

상임 지휘자를 두지 않는 독특한 전통에 기반해 어는 개인에 의해 변하지 않는 동질의 음향을 구현하는, 완전한 자주성을 지닌 오케스트라이다. 유구한 역사의 전통을 보수적으로 지켜온 그들의 노력에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것은 당연하다.

**# 프로그램**

W. A. Mozart **Piano Concerto No.23 in A major, K.488**

 I. Allegro

 II. Adagio

 III. Allegro assai

W. A. Mozart **Symphony No.40 in G minor, K.550**

 I. Molto Allegro

 II. Andante

 III. Menuetto

 IV. Allegro assai

W. A. Mozart **Symphony No.41 in C major, K.551**

 I. Allegro vivace

 II. Andante cantabile

 III. Menuetto: Allegretto

 IV. Molto Allegro